

보육시설내 성별에 따른 영아와 교사 및 또래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The sex difference in infants' verbal and nonverbal interactions with their teacher and peers

이 순 형*

Yi, Soon Hyung

김 정 연

Kim, Jung Yeon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 between infant verbal and nonverbal interactions with a partner (teacher or peer). The subjects were 20 two-year-old infants (10 boys and 10 girls, mean age 31.3 months). Verbal and nonverbal interactions were videotaped during one hour of indoor free play per child in the Center.

In verbal interaction, (1) boys spoke to themselves more than girls did, and (2) girls gave orders (imperatives, requests, and prohibitions) to peers and teachers more than boys did.

In non-verbal interactions, (1) girls nodded to teachers more than boys did, (2) boys came closer to peers more than girls did, and (3) girls refused by gestures to peers more than boys did. In conclusion, the majority of the boys could be classified as peer-oriented and physically active in their interactions.

I. 문제 제기

영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한다. 영아들은 운동능력이나 언어능력, 그리고 인지적인 능력에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에게 가능한 상호작용은 발달적 특성과 관련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되어 구체적인 언어적 상호작용, 비언어적 상호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독특한 놀이행동으로 표현되곤 한다. 영아는 12개월에 한 마디 말을 시작하면서 2세 경에 아동의 언어 획득이 활발해지며 이 시기에서부터 4, 5세가 될 때까지 아동은 복잡한 문법을 사용할 줄 알아 다양한 문장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점차 다양한 언어 표현에 익숙해지는 영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은 듯하다. Muller(1972)가 3-5세의 유아들을 동성끼리 짝지어 또래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62%는 화자의 말에 적당하게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했고, 15%는 의사소통 상호작용에 실패했으며, 23%는 화자에게 시각적으로 집중하기만 했다. Piaget(1926)는 영아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관련해 전조작기의 아동이 자기 중심적인 인지적 특징이 있어 아동의 언어 사용에 사회적인 언어보다 자기 중심적인 언어가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영아의 언어적 상호작용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조작기 아동의 특징적인 언어가 '자기중심적 언어'라고 주장했다. 인지적 결핍으로 인하여 영아의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약 3세 경까지는 상황이나 몸짓, 음성어 등의 비언어적 요소에 강하게 의존하게 된다(Halliday, 1975). 따라서 이 시기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려면, 언어적인 상호작용과 함께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영아는 언어 이전에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여 대상으로 하여금 욕구를 충족시키게 하는 '의도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지적하기'의 행동 출현과 더불어 '참조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소리 및 신호와 사회적으로 부여된 의미 사이의 관계를 획득하여 '관습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Bates, O'Connell, & Shore, 1987). 이들은

영아가 언어를 획득하기 이전에도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영아는 언어 이전 단계에서도 언어 사용에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의도성, 참조성과 관습의 세 요소가 발견된다고 보고했다. 영아는 '지적하기'를 통해서 타인에게 어떤 사물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것을 고려하게 함으로써 성인과 참조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영아기의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영아는 제한된 수준에서 또래와의 놀이행동을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영아는 10-12개월 경이 되면 또래와 서로 친숙하게 지내고 서로 미소를 지으면서 놀 수 있다(Eckerman & Whatly, 1977). 영아가 생후 1-2세가 되면 놀이 방법이나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 다른 유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

놀이를 통해서 형성된 사회성은 성별간에 차이가 있다. 남아는 신체적 놀이를 선호하고 여아는 신체적 놀이보다는 가상놀이를 즐길 뿐만 아니라 남아는 공격성과 대담성을 놀이과정에서도 보이는데(권혜진, 1996), 여아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성차는 선호하는 놀이나 놀이 행동에서뿐 아니라 교사나 또래간에 상호작용과정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연구들이 6세 경의 유아를 대상으로 성차를 찾아냈다면 더 어린 영아를 대상으로 그러한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성차의 출현시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성차는 언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2세 영아에게서도 나타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2세 영아의 자유놀이 상황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영아의 성별에 따라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영아기 사회적 상호작용은 자신과 인지적 능력이 다른 성인들과 인지적 능력이 비슷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Piaget가 유아의 자기

중심적 인지 한계를 극복하는데 또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Vygotsky(1962, 1978)는 아동의 발달에서 성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그의 근접발달지대이론을 보면, 성인의 지도와 도움은 잠재적 능력을 개발해서 현실적 발달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는 아동과 성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양육자 및 대리 양육자로서 교사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으며 '발달에 선행한 교육'을 주장함으로써 교사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했으며 이 과정에서는 유아와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비중을 두었다. 교사와 영아와의 관계가 일방적이기 보다는 상호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교사만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연구의 한계가 있으므로 교사와 영아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양방적으로 보고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영아와 교사, 또래간의 상호작용을 양방적으로 분석하여 상호작용을 밝힐 것이며 이 상호작용의 과정이 영아의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려는 목적에서 이 연구는 아래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영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성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영아의 언어적 발화는 성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영아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은 성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변인들을 가능한 한 통제하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이 유사하고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이 동일한 보육시설 두 곳에서 20명의 관찰 촛점영아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두 학급의 교실크기는 각각 29.16m², 40.05m² 정도였으며 각 교실의 흥미영역 구성이나 교구, 교재의 수 등 두 학급의 물리적 환경은 유사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27개월 이상 35개월 미만의 영아로 모두 취업모의 자녀이다. 이들은 남녀 각각 5명으로 총 20명인데 외아이가 남아 3명, 여아 6명이다. 말이는 남아가 1명이고 여아는 4명이다.

영아의 연령, 보육받은 기간, 부모의 학력에 대한 성별 차이 검증은 〈표 1〉과 같다.

두 집단간 차이 검증 결과 영아의 연령¹⁾, 보육받은 기간, 부모의 학력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볼 때 성별에 따른 영아의 일반적 특성은 대체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 성별에 따른 관찰 대상 영아의 특성

	남		여		z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월령	31.3	1.95	30.5	2.68	.46
보육개월수	4.6	4.99	7.1	5.67	.31
모의 교육년수	13.0	3.16	14.4	1.84	.24
부의 교육년수	13.9	2.85	15.6	1.27	.11

1) 월령을 좀더 자세히 보면, 27-28개월에는 남아 1명 여아 4명, 29-30개월에는 남아 5명 여아 2명, 31-33개월에는 남아 3명 여아 2명, 34-35개월에는 남아 1명, 여아 2명이었다.

2. 연구절차

이 연구의 관찰절차는 예비관찰과 본관찰의 2회 관찰로 이루어졌다. 1차 예비관찰이 적절한 관찰시간대 및 관찰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자유놀이 시간의 영아의 교사 및 또래와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1시간동안 비디오로 촬영하였다. 이를 본 연구자가 아동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1명 및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여 선행연구를 기초로 영아의 교사 및 또래와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관찰 범주를 수정, 고안하였다.

본 관찰은 보육시설의 오전 자유놀이 시간에 영아의 활동과 교사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관찰대상 영아를 1시간동안 2주일에 걸쳐서 비디오 녹화하였다. 녹화된 자료의 처음 10분은 영아들이 자유놀이를 시작하는 시점이고 비디오 촬영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료분석에 사용하지 않았다. 상호작용 대상에 따라 또래와의 상호작

용, 교사와의 상호작용으로 Holloway와 Reichart-Erickson(1988)이 사용한 범주를 사용하여 범주화하여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범주는 개별활동체계와 상호작용체계로 나뉘었다. 개별활동은 관찰 초점 영아가 또래나 교사와 상호작용이 없이 이루어진 활동으로 하위범주는 6개로 혼자놀이, 활동영역 찾아 이동하기, 목적없이 배회하기, 또래 관찰하기, 교사 관찰하기와 혼자말하기 등이다. 상호작용활동의 관찰체계는 영아의 교사 및 또래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으로 나뉘는데, 교사 언어의 기능을 분석한 Pellegrino와 Scopeci(1990), 유아의 사회적 언어유형을 분석한 Pellegrini(1984)의 관찰범주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예비관찰을 통해 실제 유아의 행동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한 관찰범주로 다섯개의 관찰범주로 나뉜다.²⁾

영아의 교사 및 또래와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은 영아의 자유놀이 활동을 분석한 Holloway와 Reichart-Erickson(1988)의 관찰범주를 기초로

2) 이 범주의 세부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A. 공감

화자나 청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긍정적 평가, 지지, 승인하거나, 자신의 내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6개의 하위 범주를 포함한다.

- ㉠ 내적 표현(internal expression): 감정, 감각, 의도, 그밖의 정신적인 사건을 표현하는 것.
- ㉡ 평가(evaluations): 개인적인 판단 또는 태도를 표현하는 것.
- ㉢ 추정(attributions): 다른 사람의 내적 상태에 대한 믿음을 보고하는 것.
- ㉣ 감탄사(exclamations): 놀람, 기쁨 또는 다른 태도를 표현하는 것.
- ㉤ 반복(repetitions): 지지의 의미로 앞의 발화를 되풀이하는 것.
- ㉥ 위로(consoleations): 부정적인 정서표현(불안, 우울, 불편감, 울음)을 하는등 타인을 안심시키는 것.

B. 의사소통 정보를 요구하거나, 요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7개의 하위 범주를 포함한다.

- ㉠ 선택 질문(choice questions): 명제와 관련하여 예, 아니오의 판단을 구하는 것.
- ㉡ 정보-요구질문(product questions): 의문사(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와 관련된 정보를 구하는 것.
- ㉢ 과정 질문(process questions): 광범위한 묘사나 설명을 구하는 것.
- ㉣ 수사 의문(rhetorical questions): 수사학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문으로 말하는 것.

하여 본 연구자가 예비관찰을 통해 수정, 보완한 관찰범주로 분석하였다. 비언어적 상호작용은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총 빈도와 기능범주로 관찰된다.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영아와 또래 및 보육교사의 비언어적 상호작용 기능의 관찰범주는

다음과 같다.

영아와 교사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은 모두 14항목인데, 영아가 교사에게 한 비언어적 행동과 교사가 영아에게 한 비언어적 행동은 각각 10항목으로 분석된다. 그 이유는 영아의 교사에 대한 비

- ㉔ 확인 질문(clarification questions): 상대방이 한 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말.
- ㉕ 선택 질문에 응답(choice answers): 명제에 대해서 요청 받은 판단을 제공하는 것
- ㉖ 정보 요구 질문에 응답(product answers): 정보를 제공하는 것
- ㉗ 과정 질문에 응답(process answers): 요청한 설명 등을 제공하는 것.
- ㉘ 승낙(compliances): 수락, 거절, 또는 요구에 대한 승인을 표현하는 것.

C. 기술, 설명

사실을 보고하거나 사회적 규칙을 설명하고, 사건의 이유, 원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5개의 하위 범주를 포함한다.

- ㉙ 확인(identifications): 사물, 사건, 인물 등에 명칭을 붙이는 것.
- ㉚ 묘사(descriptions): 사물의 속성, 위치나 사건 등을 서술하는 것.
- ㉛ 규범적 설명(normative explanations): 절차, 사회적 규칙 등을 말하는 것.
- ㉜ 정의적 설명(definite explanations): 사물의 속성을 말하는 것.
- ㉝ 인과적 설명(causal explanations): 이유, 원인, 정당화 등에 대해 말하는 것.

D. 조정

개인적인 접촉과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8개의 하위 범주를 포함한다.

- ㉞ 행위 요구(action requests): 청자에 의한 행위의 수행을 요구하는 것.
- ㉟ 허가 요구(permission requests): 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허가를 요구하는 것.
- ㊱ 제안(suggestions): 청자 또는 화자의 행위 수행을 권유하는 것.
- ㊲ 화자 선정(speaker selections): 다음 차례에 말할 사람을 지정하는 것.
- ㊳ 주위집중(attentions): 관심이나 주위집중을 유도하거나 요구하는 것.
- ㊴ 주장(claims): 화자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
- ㊵ 경고(warnings): 청자에게 피해를 경고하는 표현.
- ㊶ 항의(protests): 청자의 행동에 반대를 나타내는 것.

E. 지시

화자가 자신의 의지를 관찰하기 위해 청자의 행동을 지시,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하위 범주를 포함한다.

- ㊷ 명령(imperatives): 화자의 의지, 지시 등을 청자가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
- ㊸ 요청(requests):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나 지시 등을 청자가 따르도록 하는 것.
- ㊹ 금지(prohibition): 화자가 청자의 행동을 금지, 제한하는 것.

언어적 행동과 교사의 영아에 대한 비언어적 행동이 정확하게 대칭되지 않기 때문이다. 영아의 교사에 대한 비언어적 행동에는 가리키기, 지도에 따르기, 요청하기, 고개끄덕이기, 웃기, 신체적으로 보살피기, 도와주기(주기), 보여주기, 근접하기, 거절하기항목의 10항목이 관찰, 분석되었고 교사의 영아에 대한 비언어적 행동에는 가리키기, 요구들어주기, 지시하기, 쓰다듬기, 안기, 웃기, 신체적으로 보살피기, 도와주기, 보여주기, 신체적으로 제지하기의 10항목이 관찰, 분석되었다.

영아와 또래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은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래와 공동놀이, 애정적인 신체접촉(쓰다듬기, 안기, 손잡기), 장난감 주기, 수용하기(장난감 받기, 또래 제안 수용하기), 웃기, 근접하기(상호작용 시도), 보여주기(장난감 자랑하기, 보여주기), 자기 주장하기(소유권 주장하기), 거절하기(제안, 시도를 거절), 밀기, 때리기(깨물기), 방해하기(괴롭히기), 뺨기와 무반응이다.

3) 자료의 분석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는 관찰 초점 아동을 중심으로 30초로 나누어 50분간 분석하여 영아의 상호작용 유형을 관찰기록지에 전사하여, 이 시간 안에 이루어진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모두 분석하였다. 한 아동당 관찰횟수는 100회, 한 집단당 관찰시간과 관찰횟수는 500분(50분×10명), 1000회이며, 전체 관찰시간과 총 관찰횟수는 1000분(50분×20명), 2000회이다. 전사한 자료는 연구자를 포함한 아동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3명이 관찰체계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평정하였다. 평정자간 신뢰도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경우 .92였으며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경

우는 .90이었다. 분석자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되는 부분의 비디오 테이프를 반복하여 본 다음 토의를 거쳐 2사람의 의견이 일치하는 쪽으로 결정하였다.

관찰된 상호작용의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합이 기술통계치로 사용되었고 SPSS/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집단별 차이 검증에는 비모수 통계검증법인 Mann-Whitney검증과 Sign 검증이 실시되었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영아의 자유놀이 활동

영아 놀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별활동과 상호작용활동을 조사하고 아울러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분포를 개관해 보았다. 영아의 자유놀이 활동을 보면, 개별활동의 비율이 44.2%였으며 상호작용활동은 55.8%였다. 그리고 또래에 대한 비언어적 행동은 21.7%, 또래에 대한 언어적 행동은 13.6%, 교사에 대한 비언어적 행동은 11.9%, 교사에게 한 언어적 행동은 8.6%이었다. 2세 영아의 자유놀이 상황에서는 개별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호작용활동은 언어적 행동이 23.2%이고 비언어적 행동이 33.6%로³⁾ 비언어적 행동이 언어적 행동보다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은 영아의 전체 자유놀이 행동 중에 관찰된 세 행동을 따로 분류하여 그 빈도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아무 것도 안하는 남녀 똑같이 평균 2.6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간 무반응은 남아가 조금 많이, 영아 교사간 무반응은 여아가 조금 많이 하는 것으로

3)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을 비교할 때 양적 척도인 빈도만을 사용했다.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안하기, 또래간 무반응, 영아와 교사간의 무반응의 빈도는 <표 2>의 행동의 각 항목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로서 2세 영아는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같이 놀거나 대화하고 탐색하는 등의 활동의 시간이 더 많으며 대인간 상호작용에서 비교적 반응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2> 성별에 따른 영아의 무반응

구 분	전체(%)	남	여	z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아무 것도 안하기	52(31.9)	2.6(2.41)	2.6(3.69)	- .54
또래간 무반응	57(35.0)	3.8(4.54)	1.9(2.33)	-1.43
영아 교사간 무반응	54(33.1)	2.2(2.2)	3.2(2.57)	-1.53

1) 영아의 개별활동

개별활동에는 혼자놀기, 활동영역 찾아 이동하기, 목적없이 배회하기, 또래놀이 관찰, 교사관찰, 혼잣말을 포함시켰는데, 이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혼자놀기(48.7%)였으며 그 다음은 배회하기(14.1%), 또래놀이관찰(11.8%), 교사관찰(11.7%)의 순이었다. 혼잣말은 여아의 개별활동과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성별에 따른 개별활동의 차이 여부를 알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별에 따라 개별활동의 총 빈도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혼자놀기, 활동영역 찾아 이동하기, 또래놀이 관찰에서 여아의 평균이 남아의 것 보다 더 높았다. 남녀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혼잣말항목이었다. 남아가 여아보다 혼잣말을 많이 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영아의 개별활동은 혼잣말을 제외하면 성별에 따라 영아의 전반적 개별활동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영아의 상호작용활동

① 상호작용 대상에 따른 언어적 상호작용

영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동일한 언어적 기능 맥락에서 영아가 교사와 또래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한 교사와 또래는 영아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부호(sign)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해 보았다. <표 3>에서 영아가 교사와 또래에 대해서 하는 언어 행동을 비교해 보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전반적으로 또래에 대해 말을 약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는 교사에게 질문 및 응답어와 설명어를 더 많이 말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유의미한 항목은 공감어와 지시어항목이었는데, 영아가 교사에게보다는 또래에게 유의미하게 더 많이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서 영아가 공감어와 지시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공감어에는 내적 표현, 평가, 추정, 감탄사, 반복, 위로의 하위 항목이 있는데 내적 표현의 예로는 “여기 아파”, “고맙습니다”, “미워” 등이 있고 감탄사의 예로는 “아 좋다”, “야 크다” 등이 있다. 영아들은 평가, 추정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다. 지시어의 예로는 명

령, 요청, 금지가 있는데 명령어의 예로는 “여기 답아”, “빨리 숨어” 등이, 요청에는 “컵 좀 주세요”, “목어 주세요” 등이, 금지어의 예로는 “안 돼”, “하지마”, “그러는 거 아니야” 등이 있다. 이처럼 2세 영아도 상황에서 요구되는 언어를 다양하게 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금지어는 부정(否定)과 거부에 대한 부정사를 획득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부정사의 획득은 영아가 대상항상성을 획득했다는 것으로서 인지발달 수준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교사가 영아에게 한 발화 가운데 질문 및 응답어가 1/3로 가장 많았고, 조정어와 지시어가 1/5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설명어와 공감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교사가 여아에게 한 발화량이 남아에게 한 발화량보다 약간 더 많았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영아와 또래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영아와 또래가 주고받은 모든 언어적 상호작용에서도 역시 여아의 언어행동 점수가 남아의 언어행동 점수보다 높았다. 영아가 또래에게 한 말을 보면, 남아의 공감어가 여아의 공감어보다 2.4배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여아의 언어적 행동의 평균이 높았다. 남녀를 통틀어 조정어가 가장 많은 빈도(3/10)를 차지했다. 그 다음이 질문 및 응답어 (1/4), 지시어(1/5)의 순이었다.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지시어 항목에서였다. 지시어의 하위항목은 명령, 요청, 금지를 포함한다. 또래가 영아에게 한 말을 살펴보면, 조정어가 33.9%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질문 및 응답어(24.0%), 지시어(21.2%)의 순이었다. 조정항목을 제외하고는 여아의 언어행동 빈도가 남아보다 높았다.

〈표 3〉 영아와 또래의 언어 교환

구 분	전체 (%)	남		z 값
		평균(표준편차)	여 평균(표준편차)	
영아가 또래에게 한 말				
공감	64(14.5)	4.5(5.56)	1.9(1.91)	-.89
질문 및 응답	111(25.2)	4.3(8.26)	6.8(9.54)	-.70
설명	549(12.2)	2.1(2.23)	3.3(5.67)	-.36
조정	128(29.0)	5.5(7.56)	7.3(7.75)	-.80
지시	84(19.0)	1.3(2.06)	7.1(7.28)	-2.23*
계	441(100)	17.7(20.48)	26.4(20.55)	-.30
또래가 영아에게 한 말				
공감	32(8.8)	1.3(2.83)	1.9(1.73)	-1.51
질문 및 응답	87(24.0)	1.7(2.50)	7.0(9.81)	-1.47
설명	44(12.1)	1.7(2.41)	2.7(4.47)	-.04
조정	123(33.9)	7.1(6.33)	5.2(5.27)	-.76
지시	77(21.2)	3.3(5.77)	4.4(7.37)	-.16
계	363(100)	15.1(14.84)	21.2(18.37)	-.64

* $p < .05$

〈표 4〉 성별에 따른 지시어 사용

구 분	전 체	성 별		z 값
		남 평균(표준편차)	여 평균(표준편차)	
영아→교사 및 또래				
명령	18(4.2)	0.6(1.08)	1.2(1.40)	-1.03
요청	74(17.1)	0.2(0.63)	7.2(10.6)	-1.63
금지	58(13.4)	1.2(2.53)	4.6(5.58)	-1.99*
계	97(22.4)	1.6(2.07)	8.1(7.67)	-2.59*
교사 및 또래→영아	336(77.6)	14.6(6.12)	19.0(9.38)	- .87
교사와 또래간의 지시어	433(100)	16.2(7.53)	27.1(6.6)	-2.77**
상호작용의 합계				

* $p < .05$ ** $p < .01$

〈표 4〉는 지시어의 사용에 관해 영아의 교사 및 또래에 대한 지시어, 교사 및 또래가 영아에게 한 지시어를 정리한 것이다. 여아가 교사 및 또래에게 대해 말한 지시어의 합계, 영아와 교사 및 또래간에 이루어진 지시어의 합계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사 및 또래의 영아에 대한 지시어의 합계는 여아에게 한 지시어 발화량이 남아에게 보다 더 많았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영아와 교사 및 또래간의 지시어 상호작용의 합계는 남아 평균 16.2회 여아 평균 27.1회로서 이 차이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했다. 즉 남아보다 여아가

명령, 요청, 금지에 해당하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많이 경험했다.

앞에서 살핀 영아의 언어적 행동에 대상의 인물이 주체인 영아에게 말한 것을 포함시켜 '언어적 상호작용'에서의 성차를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일관성 있게 여아들의 언어행동에의 참여가 남아의 언어행동에의 참여보다 더 빈번했다. 그러나 남녀 공히 표준편차의 수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가 큰 이유는 영아기 발달의 특성으로서 개인차가 크기 때문이다.

〈표 5〉 영아의 교사 및 또래와의 언어적 상호작용

구 분	전 체	성 별		z 값
		남 평균(표준편차)	여 평균(표준편차)	
일방적 언어 사용				
영아→교사	279(38.8)	11.3(12.81)	16.6(18.62)	- .19
영아→또래	441(61.2)	17.7(20.48)	26.4(20.55)	- .30
계	720(100)	29.0(20.49)	43.0(31.43)	-1.06
양방적 언어 사용				
영아↔교사	1,523(65.4)	70.9(52.10)	81.4(46.22)	- .53
영아↔또래	804(34.6)	32.8(32.88)	47.6(38.52)	- .83
계	2,327(100)	103.7(51.50)	129.0(55.40)	-1.13

영아의 언어적 행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아의 교사 및 또래에 대한 언어적 행동과 상호작용에서는 여아가 몇몇 항목에서만 남아보다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화량

에서는 일관적으로 여아의 평균값이 남아의 것보다 높지만 그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여아가 남아보다 표현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표 6〉 영아의 교사와의 비언어적 상호작용

구 분	전 체	남 여		z 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영아→교사				
가리키기	37(9.6)	1.2(2.15)	2.5(3.31)	- .80
지도에 따르기	128(33.3)	6.4(5.50)	6.4(6.98)	- .27
요청하기	20(5.2)	0.2(0.63)	1.8(5.69)	- .07
고개 끄덕이기	29(7.6)	0.5(0.71)	2.4(1.71)	-2.32**
웃기	31(8.1)	1.9(3.90)	1.2(1.99)	- .22
신체적으로 보살피기	2(0.5)	0.2(0.42)	0.0(0.00)	
도와주기(주기)	3(0.8)	0.1(0.32)	0.2(0.42)	- .61
보여주기	55(14.3)	2.4(3.75)	3.1(3.70)	- .66
근접하기	77(20.1)	3.9(4.56)	3.8(5.51)	.15
거절하기	2(0.5)	0.1(0.32)	0.1(0.32)	.00
계	384(100)	16.9(12.38)	21.5(13.95)	- .76
교사→영아				
가리키기	41(13.0)	1.3(1.83)	2.8(2.35)	-1.59
요구들어주기	7(2.2)	0.4(0.52)	0.3(0.48)	- .46
지시하기	16(5.1)	0.7(0.68)	0.9(1.29)	- .08
쓰다듬기	56(17.8)	2.7(2.54)	2.9(4.20)	- .35
안기	23(7.3)	1.7(3.02)	0.6(1.35)	- .98
웃기	45(14.3)	2.6(3.27)	1.9(2.28)	- .55
신체적으로 보살피기	10(3.2)	0.2(0.42)	0.8(1.03)	-1.33
도와주기	73(23.2)	2.4(3.24)	4.9(5.82)	- .86
보여주기	29(9.2)	1.5(2.17)	1.4(1.35)	- .39
신체적으로 제지하기	11(3.5)	0.5(0.71)	0.6(1.35)	- .61
계	315(100)	14.0(9.53)	17.5(10.60)	- .91
영아와 교사간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합계	699(100)	30.9(21.10)	39.0(23.91)	- .45

** $p < .01$

본 연구에서는 영아가 교사에게 한 행동을 관찰해서 10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하위항목별 빈도, 평균, 표준편차는 <표 6>과 같다. 영아가 교사를 대상으로 한 행동 가운데 남녀를 통틀어 교사의 지도에 따르기가 33.3%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고, 그 다음은 근접하기(20.1%), 보여주기(14.3%), 가리키기(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교사에 대한 비언어적 행동 중 신체적 보살핌(0.5%)과 거절하기(0.5%)는 가장 낮았다.

<표 7> 영아의 또래와의 비언어적 상호작용

구 분	전 체	성 별		z 값
		남 평균(표준편차)	여 평균(표준편차)	
영아→또래				
같이놀기	229(32.7)	15.5(13.23)	7.4(8.91)	-1.53
애정적 신체접촉 (장난감) 주기	19(2.7)	0.8(1.23)	1.1(2.41)	- .56
(장난감) 받기	64(9.1)	2.0(2.40)	4.4(4.60)	-1.07
웃기	65(9.3)	1.9(2.28)	4.6(3.53)	-1.58
웃기	51(7.3)	3.2(5.14)	1.9(2.33)	- .08
근접하기	48(6.8)	4.3(5.14)	0.5(1.08)	2.05*
보여주기	19(2.7)	0.6(1.08)	1.3(1.77)	-1.17
자기 주장하기	76(10.8)	3.4(5.30)	4.2(4.34)	- .85
거절하기	22(3.1)	0.4(0.97)	1.8(2.10)	-2.11*
밀기	17(2.4)	0.8(1.55)	0.9(1.73)	- .27
때리기	19(2.7)	1.0(2.16)	0.9(1.66)	- .30
방해하기	6(0.9)	0.6(1.35)	0.0(0.00)	
뺏기	66(9.4)	3.6(5.32)	3.0(2.67)	- .58
계	701(100)	38.1(30.35)	32.0(20.37)	.53
또래→영아				
같이놀기	229(38.7)	15.5(13.23)	7.4(8.91)	-1.53
애정적 신체접촉 (장난감) 주기	10(1.7)	0.1(0.32)	0.9(2.85)	- .07
(장난감) 받기	58(9.8)	1.5(2.12)	4.3(3.43)	-1.82
웃기	50(8.5)	1.5(2.40)	3.5(3.34)	-1.55
웃기	34(5.8)	2.4(3.41)	1.0(1.05)	- .59
근접하기	33(5.6)	2.5(3.10)	0.8(1.03)	-1.00
보여주기	14(2.4)	0.8(1.14)	0.6(0.97)	- .26
자기 주장하기	54(9.1)	2.9(4.56)	2.5(2.46)	- .39
거절하기	15(2.5)	1.1(1.60)	0.4(0.70)	-1.07
밀기	23(3.9)	1.1(0.57)	1.2(1.75)	-1.03
때리기	23(3.9)	1.8(3.99)	0.5(0.97)	- .90
방해하기	6(1.0)	0.3(0.68)	0.3(0.68)	.00
뺏기	42(7.1)	2.2(1.93)	2.0(2.31)	- .46
계	591(100)	33.7(23.02)	25.4(16.35)	- .76
영아와 또래간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합계				

* $p < .05$

영아와 교사의 비언어적 행동의 성차를 검증한 결과, 교사에 대한 비언어적 행동은 영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전체 비언어적 접수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평균값이 1.3배 높았고 웃기, 근접하기 등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보였으며 지도에 따르기, 거절하기는 남녀간 평균값이 유사했다. 그러나 고개 끄덕이기 항목에서만은 .01수준에서 여아의 행동이 남아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영아에게 한 비언어 행동은 <표 5>의 하단에 보듯이, 전체적으로 교사는 남아에게 보다 여아에게 1.3배 많은 행동을 했다. 교사가 가장 많이 보인 행동은 도와주기(23.2%)였으며 쓰다듬기(17.8%)와 웃기(14.3%), 가리키기(13.0%) 순으로 많은 행동을 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그 차이가 유의미한 행동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비언어적 상호작용에서는 교사와의 비언어적 상호작용보다 또래와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더 크게 나타났다. <표 5>는 영아의 비언어적 행동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또래와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실제적으로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래와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같이 놀기(32.7%)였으며 그 다음은 자기 주장하기(10.8%), 뺏기(9.4%), (장난감)받기(9.3%), (장난감)주기(9.1%), 웃기(7.3%), 근접하기(6.8%)였다.

이중에서 근접하기는 남아 평균이 4.3, 여아 평균이 0.5로 남아가 여아보다 8.3 배 더 많은 행동을 보였으며 성별에 따른 이 점수차이는 $p < .$

05수준에서 유의했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또래에게 접근하고 어울려 노는 행동을 더 빈번하게 보였다.

언어적 행동 및 상호작용에서는 근접하기의 항목과 거절하기에서만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래에게 한 비언어적 행동은 남아가 여아와 비슷했지만, 남아가 여아보다 더 접근을 많이 시도하고 여아는 또래에게 거절하는 행동을 남아보다 더 많이 했다.

<표 7>은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유형화하여 살펴본 것이다. 참고로 각 하위유형에 어떤 비언어적 항목이 포함되었는지를 살펴면 다음과 같다. 교습적 행동은 영아의 교사에 대한 행동 중 가리키기, 지도에 따르기, 요청하기, 고개 끄덕이기이며, 교사지향적 행동은 웃기, 신체적 보살피기, 보여주기, 근접하기로 유형화했다. 교수적 행동은 교사의 영아에 대한 행동 중 가리키기, 요구에 따르기, 도와주기, 보여주기, 지시하기로, 애정적 행동은 쓰다듬기, 안기, 웃기, 신체적으로 보살피기로, 거부적 행동은 신체적으로 제지하기로 유형화했다.

또래지향적 상호작용⁷⁾은 영아간의 상호작용 중 같이놀이, 근접하기로 유형화했으며, 애정적 상호작용은 애정적 신체접촉, 웃기로, 교류적 상호작용은 (장난감)주기, (장난감)받기, 보여주기로, 의사표현적 상호작용은 자기 주장하기, 거부하기로, 공격적 상호작용은 밀기, 때리기, 방해하기, 뺏기로 유형화했다.

7) '상호작용'은 두 주체의 '행동'을 합산했다. 또래지향적 상호작용은 영아가 또래에게 한 행동과 또래가 영아에게 한 행동을 모두 계산했다. 그러나 영아와 교사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은 '상호작용'이 아니라 '행동'으로 분석했는데, 이는 영아와 교사간의 상호작용의 항목은 또래간의 경우처럼 정확하게 대칭되지 않기 때문에 두 주체의 행동을 합산하지 않고 '행동'으로만 유형화했다.

〈표 8〉 영아의 교사 및 또래와의 비언어적 행동유형

구분	전체 (%)	남아(SD)	여아(SD)	z 값
영아와 교사간 비언어적 행동 유형				
영아→교사				
교습행동	214(56.3)	8.3(5.48)	12.1(8.27)	-1.40
교사지향행동	166(43.7)	8.3(8.96)	8.3(9.60)	- .19
교사→영아				
교수행동	166(53.4)	6.3(5.46)	10.3(7.45)	-1.37
애정행동	134(43.1)	7.2(5.39)	6.2(5.43)	- .58
거부행동	11(3.5)	0.5(0.71)		- .61
영아와 또래간 비언어적 상호작용 유형				
또래지향적형	329(30.4)	23.1(18.88)	9.8(9.62)	2.02*
애정형	114(10.5)	6.5(9.54)	4.9(7.71)	- .15
교류형	270(30.0)	8.3(9.18)	18.7(13.53)	-1.67
표현형	167(15.4)	7.8(11.14)	8.9(6.84)	- .91
공격형	202(18.7)	11.4(12.03)	8.8(5.27)	- .04

* $p < .05$

영아의 교사와의 비언어적 행동의 하위유형인 교습행동, 교사지향 행동 그리고 교사의 영아에 대한 행동의 하위유형인 교수행동, 애정행동, 거부행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VI. 결론 및 논의

성차에 관한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사교적이고 사회성이 발달되어 있다고 한다. 사교적이며 사회성이 발달되었다는 것은 의사소통시 타인의 의도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타인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의사소통의 민감성은 주로 언어적 상호작용과 비언어적 행동에의 민감성으로 나뉘는데 여성이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활발하고 더 풍부할 것인가는 의문이었다. 만약 유아에게서 이러한 민감성의 성차가 나타난다면 그 시기는 언제부터

인가, 그 시작되는 시기가 영아기부터라면 이는 상당히 생리적 원인으로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후천적 원인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영아의 교사 및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27개월 이상 35개월 미만의 영아 남녀 각각 10명씩 20명을 대상으로 녹화관찰을 실시하여 통계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2세 영아들은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는데 대상에 따라서 상호작용이 다르다. 이는 이미 선행연구(권혜진, 1996; 김지희·이순형, 1994)의 분석에서도 밝혀진 바인데 영아는 교사와의 상호작용보다는 또래와 상호작용을 더 활발하게 한다.

영아와 또래간 상호작용은 성별에 따라서 대부분 유사하게 이루어지는데, 언어적 상호작용과 비

언어적 상호작용의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영아의 개별행동이 성별에 따라서 유사하지만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혼잣말은 다르다. 남아가 여아보다 혼잣말을 더 많이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혼잣말' 항목에 혼자서 웅얼거리거나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포함시켜 개별 행동의 범주에 넣었고 그 외의 언어는 모두 사회적 언어로서 상호작용의 활동에서 살펴보았는데,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기중심적인 언어보다 사회적인 언어행동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혼잣말의 속성상 영아의 말을 관찰자가 잘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빈도가 더 낮게 평가된 점도 없지 않지만 그보다는 2-3세 영아에게 사회적 언어가 자기중심적인 언어보다 더 빈번하게 출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 자료는 Piaget의 주장과 달리 좀 더 어린 나이에 사회적 언어가 출현한다고 본 Vygotsky의 견해를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즉 2세 남아의 혼잣말은 일종의 내적 언어로서 자기 조정이나 자신의 감정을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혼잣말은 개인적 언어의 어떤 특정한 단계에서 나타나며 특정 기능을 한다. 처음에는 미사회적 단계로 단어놀이나 반복과 같이 자신을 자극하는 언어단계, 특별한 청자없이 외부에 명령하는 개인적 언어단계, 자신이 대답하는 질문이나 자신을 안내하는 해설 등의 내부지향적 명령단계, 내적 언어를 외부로 표현하는 중얼거림의 단계, 내적 언어나 사고를 나타내는 침묵의 단계를 거쳐 발달한다(Kohlberg, Yaeger, & Hjertholm, 1968). 개인적 언어는 인지적으로 자기 자신을 안내하는 기능과 자기 자신과 의사소통하는 기능이 있다. 영아의 혼잣말은 Vygotsky의 주장처럼 내적 언어의 형태로서 스스로에게 사고하거나 추론하는 것을 촉진하거나 아동의 감정을 규제하는 심층적인지 기능을 하는가는 의문이다. 남아와 여아의

언어적 행동 빈도에는 예외없이 여아가 더 높았는데 남아가 혼잣말을 더 자주한다는 것으로 혼잣말을 이용해 특정한 자기 조정 행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아가 혼잣말을 하여 스스로의 추론이나 판단을 강조하거나 감정을 규제하는 기능을 하는지는 추후 재분석을 해야 할 문제이다.

둘째로 영아와 또래간 주고 받은 말을 공감, 질의 응답, 설명, 조정, 지시 등의 기능어로 나누어 보았을 때 공감, 질의 응답, 설명, 지시 등의 기능어 사용에는 남아와 여아가 다르지 않다. 지시어 사용에만 성별로 다르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훨씬 더 지시어를 많이 사용한다. 지시어가 명령, 요청, 금지기능어라는 사실을 간단해 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타인의 행동을 더 요청하고 조정하고 금지하는 의도를 가지고 또래의 행동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영아가 교사에게 한 말 가운데에도 여아가 남아보다 더 금지하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또래에게 뿐 아니라 교사에게조차 여아가 자신의 의도대로 교사의 말이나 행동을 금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여아들이 또래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자신의 의지와 다른 일에 대해서는 금지하려는 의도를 표현했다.

셋째로 열 개의 항목에 걸친 비언어적 상호작용, 즉 영아의 몸짓은 부분적으로 성별에 따라 다르다. 교사에게 보여준 대부분의 비언어적 행동은 남아와 여아간에 유사한데 유독 고개 끄덕이기는 성별에 따라 달랐다. 여아가 남아보다 고개를 더 끄덕여서 자신이 상대의 말에 대해서 더 빈번히 동의하고 승인해 주곤 했다. 이것은 상당히 깊은 의미를 지닌다. 교사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수용해 주는 사회적 기술로서 여아들이 상당히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를 미루어 교사의 권위나 말을 더

많이 수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아들이 남아들에게 비해서 더 사회적으로 순응적이라는 사실로서 유추될 수 있겠다.

영아의 또래와의 비언어적 행동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남아는 여아보다 또래에게 더 빈번히 근접했다. 근접하기는 적극적 관계를 형성을 원하는 의도를 나타내며 실제로 적극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술인데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근접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남아들이 상대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또래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할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한편 여아들은 남아들보다 거절하기를 더 잘 한다. 아마도 적극적 다가서기를 하는 남아들을 여아들이 더 거절하는지는 분석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의 근접하기가 더 높고 여아의 거절하기가 더 높은 별개의 사항은 연계시켜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남아들이 또래 지향적 상호작용을 여아들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더 많다는 사실은 이러한 가정을 더욱 신빙성있게 가정해 준다. 이에 대한 추후 분석이 요구된다.

영아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유형화했을 때 영아의 상호작용은 또래 지향형과 교류형에 대부분 속해 있다. 그 중에서 또래 지향형에는 성별 차이가 명확해서 남아들이 또래 지향적 상호작용을 많이 보인 반면에 여아들은 적게 보였다.

결론적으로 영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일찍이 부분적인 성차가 나타난다. 성별로 두드러진 양상은 남아의 혼잣말하기와 또래 근접하기, 여아의 지시어와 금지어 사용, 고개 끄덕이기, 거절하기가 빈번한 것이다. 이 양상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남아는 사회적 의도를 비언어적 행동으로 나타내는데 비해서 여아의 언어적 행동으로 보다 빈번히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실은 남아의 언어발달보다 여아의 언어 발달이

빠른 데서 연유한 것인지 아니면 언어발달의 수준에 상관없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성향의 차이 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언어발달의 수준을 동일하게 통제하고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성차를 비교하는 연구가 추후에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측정 방법상의 제한점이 있다. 상호작용의 측정에서 제기된 빈도와 지속성의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30초당 행동의 출현을 1회로 기록했는데, 30초 이내에서 영아의 행동이 지속된 시간을 차별화시켜 기록하지 못했다. 또한 영아가 보인 언어적 행동에서도 문장의 길이를 통한 언어산출 능력을 차별화시키지 못하고 빈도만을 기록해 양적 분석에 그친 점이 아쉽다. 영아기를 대상으로 한 관찰연구는 예외없이 개인차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것이 통제값의 표준 편차가 큰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보육시설에 있는 영아들의 자연스럽게 실제 상황에서 영아의 교사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미시적 분석을 시도했으며 성차를 출현 시점에서 밝혀려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 아동의 행동관찰 녹화 시간이 50분으로서 선행연구들이 분석한 시간의 2-3배 더 길어 그만큼 언어 및 비언어 자료의 양이 많을 뿐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른 편차를 제외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얻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보겠다.

참 고 문 헌

- 권혜진(1996). 보육시설의 집단 크기에 따른 영아의 또래 및 보육교사와의 상호작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희·이순형(1994). 아동의 성 향상성과 고정관념의 상관성. 한국 영유아 보육학, 1권, 108-125.

- Bates, E., O'Connell, B., & Shore, C. (1987). Language and communication in infancy. In Osofsky, J. D. (Eds.),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Waldrup, M. F.
- Dore, J. (1974). A pragmatic description of early language development.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3, 343-350.
- Eckerman, C. O. & Whatley, J. L. (1977). Toys and social interaction between infant peers. *Child Development*, 48, 1654-1656.
- Halliday, M. (1975). Learning how to mean. In Lenneberg, E. (Ed.), *Foundation of language development: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New York: Academic Press.
- Holloway, S. D. & Reichart-Erickson, M. (1988). The relationship of day care quality to children's free play behavior and social problem solving skil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39-53.
- Kohlberg, L., Yaeger, J. & Hjertholm, E. (1968). Private speech: Four studies and a review of theories. *Child Development*, 39, 691-736.
- Mueller, E. (1972). The maintenance of verbal exchanges betwee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43, 930-938.
- Pellegrini, A. (1984). The development of functions of private speech. In A. Pellegrini & T. Yawkey (Eds.), *The development of oral and written language in social context*. Norwood, NJ: Ablex.
- Pellegrino, M. & Scopesi, A. (1990). Structure and function of baby talk in a day care center. *Journal of Child Language*, 17, 101-114.
- Piaget, J. (1926). *The language and thought of the child*.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Vygotsky, L. S. (1962).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MA: M. I. T. Press.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